사람은 고통을 알기에 부처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 A21면에서 계속

답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그냥 사니까 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살고 계시지마는 이게 이 전체를 본다면 너무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갖춰야 될 문제들이요. 알아야 할 문제들이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든, 냄비에다가 숟가락을 몇 개 꼽아 놓고 한 식구가 잘 먹었다 그러고 나서는 집안이든, 잘 차려 놓고 먹고 나서는 집안이든 간에 하여튼 이 공부는 꼭 하셔야만이 되겠죠.

가난하면 가난해서 빨리 해야겠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빨리 해야겠고, 돈이 없다가 좀 생길 만하면 쓸 데가 자꾸 생겨서 없어지니 또 해야겠고, 가정이 불편하니 해야겠고…. 모두가 다 어떤 거든지 이 부처님 법에는 거론이 되는 겁니다. 어느 거는 안 되고 어느 거는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오십 프로밖에는 모르겠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난스럽고 어떻게 권리가 있어지고 어떻게 괴로움이 있어지고 이런 문제에만 끄달렸지 지금 그놈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거는 모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사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사시고 편안하면 '과거에 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고 또 지금 고통스럽고 아주 고난스러우면 '과거에 내가 참 못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면 미래에는 자식들까지 모두 괜찮게 살게 되겠죠. 그건 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발을 떼어 놓고 사는지, 떼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떼어 놓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 놓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면, 철저하게 그렇게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놓을 종자 자식들도 다 괜찮게 되실 겁니다, 아마. 모두 학교 때문에도 앨 쓰시고 그러는 게 그것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깐 문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셔서 집안 가사에 이득이 가고 공덕이 가서 모두 세세생생에 겁나지 않게 사시게끔 하세요.

정신의 병도 마음 내면…

질문 요즘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의 병도 마음을 내면 좋아질 수 있는지요.

답변 이런 얘기 그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광명사의 마당이 그전에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사기 전에 밭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깨를 담뿍 심어 놨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딧물이 함빡 앉아서 깨를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농사지은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아서 일곱 식구가 굶어 죽겠다고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관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깻조자리의 진딧물도 전부,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걸 믿구요, 만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까짓 소리 해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을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부터라도 아리송해서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량없지, 아, 그걸 믿고선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요렇게 빨간 점이 있고 풍뎅이같이 생긴 요만큼씩한 거 있죠? 고런 게 그냥 함빡 앉아서 진딧물을 다 빨아 먹더랍니다. 다 빨아 먹고는 그냥 훌렁 날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깻조자리가 되살아나게 되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고서 다른 것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해에 농사가 잘돼서 오막살이지만 우리가 보태 준 돈 조금하고 합쳐서 집을 사 가지고 나갔죠. 그러한 일이 있었구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몸속의 의식들을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입자가 나가서 그 속에 자기로 들어가서 다 조절하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저렇게 내면 저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엉뚱하게 내면 엉뚱하게 따라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식구를 이끌어 가고, 내 조상을 이끌어 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 가고, 세세생생에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길은 바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앞서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현재 또 잘 생각을 해서 주인공에 다 맡기니까 그게 재입력이 되는 겁니다. 재입력이 된다면 바로 팔자 운명이니 뭐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삭쳐 없어지는 거죠. 새로 입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세가 좀 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처음에는 그걸로다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서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 급하면 쓸 때도 있겠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다면 급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평소에는 못 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정 급하면 모습 없는 나의 마음, 즉 체 없는 나가 그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가 그랬죠? 어떤 혹성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하시라도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주인공에 집어넣어야만이 됩니다.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 할 때에는 주변에서라도 자꾸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그 혼란스러웠던 입력 자체가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바뀌게 되니까 마음으로 고장 난 거는 마음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을 두들기고, 목탁을 치고, 굿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그쪽에선 콧방귀 뀌고 점점 더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다 할지라도 그 착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얼쓱 껴안고 '야! 너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싸안아 준다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어 보니까 너무도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진짜 자비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짐승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가끔씩 제 행을 돌아보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처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한다는데 짐승으로 태어나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람이 됐다가 짐승의 탈을 쓴 짐승들은 공부합니다. 그거를 어찌 알았느냐 하면,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재를 지내면 시식 밥을 커다란 넓은 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과일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요, 다니면서 다른 뭐를 잡아먹지 않구요, 그냥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그냥 꾸부리고 있구요. 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돼 봤던 짐승이라야 짐승이 돼도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사람으로 살아 보지 않은 짐승은 그런 인식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돼 봤던 의식이 돼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우리가 뭐, 부처가 돼 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 생물들이 다 올라오면서 지금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도 하고 알고도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오래된 공부하는 거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늘의 천기를 알고 있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북이나 큰 무슨 상어의 영령이라든가, 아예 밑에 들어가서 채식만 하고, 그냥 앙금만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생물들이 물속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영혼이 그냥 옷을 벗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하늘로 오르죠. 올라서 다시 한 번 돌아서 인생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 허허, 봐서가 아니라, 내 이 겉껍데기로 봐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러십디다. 허허허….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는 수도 있고, 짐승으로 살다가 아주 그냥 벌레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도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절반이 떨어지고 절반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짐승들 절반이 사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고 돕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개로 모습을 타고 나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이 모습, 옷 입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짐승의 옷을 입어 보세요. 짐승 대접밖에는 못 받지.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짐승들도 지옥에서 사는 짐승들이 많아요. 오간지옥이라고 땅속에서요, 지금 그 국내 밥내도 못 맡고 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허다하게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이 따로 있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정치범은 정치범대로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대로 따로 가두어 놓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람이 죽으면 쌀을 그냥 고스란히 해 놓기도 하고, 재를 그냥 아주 곱게 쳐서 이렇게 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문으로 나가는 데다 이렇게 해 놓고선 그거를 보죠. 보면은 꼭 발자국이 그렇게 있거든요. 뱀이 된 거는 기다랗게 늘어져 있고, 사람이 된 거는 사람 발자국이 돼 있고, 또 닭이 된 거는 닭 발자국이 돼 있고 그렇게, 곱다란 재 위에 그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돼 보세요. 허, 몇천 번을 자기가 죽어요, 몇천 번 그냥 그냥! 뜨거운 물에 삶겨서 그냥 몇천 번 죽어요. 그러니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죠, 하하하. 또 "독사 소굴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는, 독사 소굴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독사가 사는 데에 그 영이 들어가면 독사로다가 화해서 모습이 돼 나오는데, 그러면 독사인 거지 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독사 소굴에, 그 깊고 깊은 독사 지옥에 들어가려느냐, 화탕지옥에 들어가려느냐, 그냥 뭐, 별소리가 다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어디 지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승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중세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상세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지요, 본래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본래 권리를 99%를 받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인간으로 나왔으니까요. 전자에 깨친 부처님도 사람이지 뭐,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마음 안으로다가 찾으면서 그 우주와 삼천대천세계와 직결이 돼 있는 거기를 붙들고 나가는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요행이라기보다 아주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던 그대로 이제 마음의 공덕이 돼서, 그 공덕 가운데서 소생이 된단 얘깁니다.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되고, 타의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 속에다 넣고,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니까 더불어 같이 돕죠.

>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직거리게 하고
> 보게 하고 듣게 하니
>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라.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